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거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교회 내 예배 실태 모니터 추가 설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이 바울의 고백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22개의 교회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공 예배, 집회 그리고 모임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풍성하며 이로 인한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라”(벧전 5:8). 비록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악한 사탄의 유혹은 매순간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우리는 본질상 죄로 가득한 죄인입니다(엡 2:3).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도 십자가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매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교회 내 모든 공간에서 주일 예배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모니터가 미비했던 공공 장소를 중심으로 모니터 설치를 마쳤습니다. 지하식당, 선교당 1층, 교육관 1층, 갈릴리교회 베다니홀 사이의 이동 통로, 선교당 2층 도서관까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간과 통로에서 주일 예배 실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과 찬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벧전 4:7). 복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총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밟히 나리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함이라”(벧 2:16).

크리스마스 메시지② (금요집회)

중심으로부터 “다윗” (삼상 13:14)

독한 상한 자이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자의 아내를 자기의 것으로 취한 악한 남자였다. 다윗아말로 신자들이 가장 미워하고 무시해야 하는 자인 동시에 동정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의 일면이 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문제들을 놓고 호소하였고 하나님은 늘 응답하여 주셨다. 그러나 진정 다윗이 그 중심으로 부터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삼상 13:14). 우리는 이 다윗의 간절함을 배워야 한다. 우리 역시 우리의 찢어진 심령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삼상 14:7, 9:11).

천성 문을 향하여 기도로서 두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 다윗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받기를 원한다(삼상 6:11, 2). 다윗의 시 속에는 인간의 감정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을 찬양함이 모두 나타나 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기대하였다. 그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또 그 후에도 영원토록 역사하실 구원자를 보았다. 이 구원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 중세대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당시의 왕은 기록한 왕위에 위임을 받는 포로서 기쁨 부음을 받았다. 기쁨 부음을 받은 자는 여호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기쁨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었다(삼상 2:2). 히브리 말인 메시야는 회개자로 그리스도로 기록된다(삼상 1:17). 다윗 역시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다(삼상 1:14). 시편 72편은 대관식에 합당한 노래로써 구원자를 의와 공평한 자, 영원한 통치자, 만왕의 왕, 그의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삼상 72:1, 2, 5, 8-14). 자비와 긍휼이 크신 자이다. 메시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다윗은 지독한 살인자였지만 정결케 될 것을 간절하게 원하였다. 이러한 자가 흔히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숨기거나, 혹은 의로움, 인격자, 성화하려 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기록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 다윗

은 이것을 잘 알아 자신에게 있는 죄의 실존을 그대로 인정한다(삼상 51:3, 4).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라 피리이다”(삼상 51:7). 후에 이사야와 다윗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붙들었다(삼상 1:18; 단 7:9). 이들 역시 구원자로서의 메시야를 기다렸고 이 기다림의 결정적인 열쇠로 그와 유대인들은 우슬초를 사용한다(삼상 12:22). 그리하여 사방의 천사가 이를 보고 넘어간 것이다. 우슬초는 레위기에서도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에 사용되었다(삼상 14:4, 6, 51:52). 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상징의 의미로 예수님도 관련되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삼상 19:29). 목 마른 자에게 주는 진노도주의 그 쓴 맛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쓴 맛이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어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구속자가 무엇을 하십니까?’에 관한 다윗의 두 번째 주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삼상 16:1). 다윗에게 일어나는 끝없는 전쟁 속에서 그는 그의 생명을 볼 수 있었다. 악의 영들은 우리의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만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산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 뿐이다(삼상 6:12). 하나님의 품 속에는 깨어있지 않고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 이유도 없다.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지만 이 죽음도 극복할 수 있음도 알고 있었다(삼상 16:8-10; 고전 13:12).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왕의 계보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자주 다윗 왕을 돌이켜보면서 그 왕의 이름을 사용하셨다(삼상 22:42-45). 다윗 왕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성경적인 통일성은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의 뿌리처럼 힘에 있다. 이미 이 구원자는 세상에 오셨고 내가 바로 이 구원자의 계보 속에 있는 것이거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시편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 곳으로 인도하여 줄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능력을 바라보게 된다. 죽음을 정복하신 이 구원자는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기다림 역시 그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의 믿음도 그의 영존하시므로 이루어졌다. “오 나의 주여! 내 자신이 다윗 왕과 조종도 다를 바가 없으니 진실로 두렵나이다. 너무나 자주 나 자신이 살아남았으니 멀리 떨어져 있을을 논합니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 날까지 주께 봉사하리니. 땅아 같은 세상에서 나의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 십자가,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나이다. 그리하여 늘 주의 곁에 가까이 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월 교회 일정

- 4일(수) 고구위위원회 헌신예배
(수요 2부 예배 시)
- 11일(수) 총력 교회주변 집도
(수요 1부 예배 후)
- 18일(수) 정기 당회(수요 2부 예배 후)
- 20일(금) 펠릭스 장로 주례 집회(금요집회 시)
- 22일(주) 제5차 학습·세례식(찬양예배 시)
- 25일(수) 장로·안수식·권사 임직예배
(수요 2부 예배 시)
- 27일(금) 제3차 청년회 훈련(금요집회 시)
- 29일(주) 종교개혁 주일

*주말 예배시간 변경

(수요 2부 예배, 금요집회)

10월 4일 수요 2부 예배 시부터

저녁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됩니다.

Sermon for Next Sunday

ATTITUDE OF DISCIPLESHIP

(14) I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 (15) So, for my part, I am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 (16)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17)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Romans 1:14-17)

In today's Bible verses, Paul reveals his attitude of discipleship. He says, "I am under obligation both to Greeks and to barbarians, both to the wise and to the foolish"(v. 14). He is committed to everyone who does not believe in Jesus Christ, and is ready and willing to preach the gospel, "So, for my part, I am eager to preach the gospel to you also who are in Rome"(v. 15). Not only does he have an enthusiastic responsibility for unbelievers, but also he is not embarrassed about the gospel,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v. 16). He knows that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v. 17). This is Paul's attitude of discipleship. What is your attitude of discipleship? Are you really thinking about other people's souls and sharing the gospel with them? Let us look at Paul to see how our attitude of discipleship measures up.

Paul was honest about himself, in front of God and others. He truthfully claimed to be carnal, "but I am of flesh, sold into bondage to sin"(Rom. 7:14). Before he met Jesus, he tried to solve his own problems through his conscience, but miserably failed. Everyone who tries to be good through their own heart and efforts fails short because all humans belong to the flesh. We cannot become spiritual, even when we stay away from sin, because we are unrighteous. We are born enemies of God, and only God can change our position and give us the blessing of spiritual holiness. God promised, "I will put My law within them and on their heart I will write it;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Jer. 31:33). Paul confessed his miserable and shameful condition,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set me free from the body of this death"(Rom. 7:24)?

Paul clearly understood the problems and tensions between the flesh and the Spirit,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Gal. 5:17). Humans are so smart and many people desperately try to do good by their flesh and own wisdom, which leads to real trouble. Human flesh contains all kinds of terrible things, like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idolatry, sorcery, enmities, strife, jealousy, outbursts of anger, disputes, dissensions, factions, envying, drunkenness, carousing, and even more things like these. Spiritual things, like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come through the Holy Spirit, not the flesh(Gal. 5:22&23).

Only the grace of God, Jesus Christ, can bring spiritual things into human life. Jesus met Paul on the road to Damascus. Paul found the truth because of God's grace. Jesus called Paul, and Paul accepted

Him. Now, his attitude glorifies, not disgraces, the gospel. Because of Jesus Christ, not his own effort, Paul could proclaim that he was not ashamed of the gospel,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1 Cor. 15:57). Paul found the truth and knew he owed this truth to others,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Rom. 12:2). His heart desired to go to everyone whose soul was unsaved.

Every believer receives a special gift, "As each one has received a special gift, employ it in serving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of the manifold grace of God"(1 Pet. 4:10). Are you using your gift to fight against others or to fight against sin? Romans 8:38&39 say,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Here is ample reason to practice your faith in Jesus Christ. As a preacher and an apostle and a teacher, Paul said, "For this reason I also suffer these things, but I am not ashamed;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I a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until that day"(2 Tim. 1:12). Do you have this kind of attitude? Paul told the Romans, "But I am speaking to you who are Gentiles. Inasmuch then as I am an apostle of Gentiles, I magnify my ministry"(Rom. 11:13). Paul looked at his job as glorious. Are you proud of Jesus Christ?

God gives you everything, if you give up everything. Everything Jesus gave to Paul, Paul magnified. 1 Corinthians 1:1 says, "Paul, called as an apostle of Jesus Christ by the will of God." God's grace is amazing! Paul says, "But may it never be that I would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From now on let no one cause trouble for me, for I bear on my body the brand-marks of Jesus"(Gal. 6:14&17). He told the Romans, "I know that when I come to you, I will come in the fullness of the blessing of Christ"(Rom. 15:29). What he received from God, he gave to others; wherever he went, he gave the blessing of Christ. Do you bless others with Christ?

My dear friend, what is your attitude of discipleship? Please confess your sin and acknowledge your wretchedness. Can you proclaim, "I am a sinner, but by the grace of God Jesus touched me, and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Now, I owe everyone who does not believe in Jesus Christ the opportunity to believe. My duty is honorable! My job is the best." Please pray for God to give you this strength, this attitude. Amen. 🙏

다음 주일 설교

제자의 태도

- ⁽¹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¹⁵⁾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¹⁶⁾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¹⁷⁾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4~17)



김성박 목사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바울은 제자로서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14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고,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15절).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불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16절).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17절).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제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제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진실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제자로서의 태도가 있는지 바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직

바울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정직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육신에 속한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롬 7:14).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양심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항상 비참한 실패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노력으로 선 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나하면 모든 인간은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죄를 멀리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위를 바꿀 수가 있고 영적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 바울은 자신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

성령

바울은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평행한 긴장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인간은 매우 영리해서 자신의 육체와 지혜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진자 문제에 봉착하고 맙니다. 인간의 육체는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인신을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과 화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영적인 것들은 육체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갈 5:22,23).

영혼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삶 속에 영적인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은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5:57). 바울은 진리를 발견했고 이 진리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자임을 알았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그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에게 달려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김

모든 신자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와 싸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38,39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실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자요 사도요 교사로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여러분은 이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롬 11:13).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어 줌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1: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갈 6:14,17). 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찬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롬 15:29).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전해주어야 할 빚진 자입니다. 나의 의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최고입니다.” 이러한 힘과 태도를 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그리스도의 손길 (단 10:18~19)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보다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먼저 주심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손길이말로 참으로 귀하고 능력이 있다. 이 손길이 지극히 법칙을 위해서 3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을 만지고 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무릎 꿇었던 다니엘을 향한 은총의 손길은 그리스도의 손길이다.

힘을 주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힘을 주시는 손길이다.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단 10:18). 주님의 손길은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을 이루만지시며 힘을 주셨다(단 10:8,9,16). 이처럼 주님의 영광 앞에 쓰러진 신자를 주님은 일으키시며 능력을 주신다(렐 4:13). 그러나 이 주님의 능력은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능력은 아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렐 3:7,8).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렐 3:17).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완수를 행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렐 3:18,19). 이같은 절절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손길은 우리 삶에 능력이 되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자족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렐 4:10~13).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힘을 이용하지 말라! 매우 중요 겸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주님의 손길을 주님께 간구하라. 그리스도의 손길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뿐이다. 그리스도의 손길만이 우리를 강건케 한다.

생명을 주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생명을 주시는 손길이다(눅 7:14,15). 우리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골 1:25,26).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마 16:18)라고 말씀하셨다.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는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마 16:22).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절도스한 화려하게 지상하고 있지 않는가?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한 채 이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믿어 지게 하는 자로다”(마 16:23)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자신의 의지, 생각이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참된 실존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있다(롬 8:11). 오직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를 살린다(엡 2:1; 요 5:28).

깨끗하게 해 주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깨끗하게 해 주시는 손길이다(마 8:3). 그의 손길은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질병도 깨끗하게 하

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보혈의 은총이 있기에 양심과 윤리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케 되며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갈 4:6)라고 부를 수 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애타게 부르셨던 그 음성이 지금 우리를 향해 호소하신다. 이 음성 앞에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나는 남마다 죽노라”(고전 15:31). “내가 네 몸을 처 복복하게 함은”(고전 9:27).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손길은 우리의 몸과 영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치료하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치료하시는 손길이다(마 8:15).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라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말라 하였으니”(마 9:29,30). 심자가 자신을 죽이고 왔던 자까지 치료하셨다(눅 22:51).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하라. 주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영혼을 깨워 주시는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영혼을 깨워 주시는 손길이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마 17:5)라는 하늘의 음성까지 듣자 세 명의 제자들은 매우 놀랐다.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주시며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마 17:7,8).

사랑의 손길 그리스도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마 20:34; 막 7:33~35). 이처럼 사랑으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자신의 의지, 고집이 완전히 끊어져 오직 그리스도만을 갈망할 때 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손길은 우리를 강건케 하며 참 생명을 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신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사랑으로 가득한 손길이다. 이 은총으로 풍성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셨다(골 8:47,48). 그런데 현재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인생의 곁을 내밀고 있는가? 은총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손길을 외면한 채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한 삶은 아닌가? 자존심 때문에 진심화 회개가 사라지 지 않았는가? 이런 사람은 결국 심판의 때에 주님의 진노만 쌓을 뿐이다(눅 24:5).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자!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세상의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겸한 십자가의 길을 걷자. 반드시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부활의 주 따라 가리면 그 손 못자국 만저라”(찬 509장).

한 영혼을 맞이하는

십자가의 사랑,

새가족 등록실



이달말 (장로, 새가족 등록실 부장)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시끌벅적 바빠지는 곳이 있다. 바로 본당 로비에 위치한 새가족 등록실이다. 이곳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은 주일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등록실을 찾아오는 새가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수 1~2부 예배 전후 30분과 금요일전 전에도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화를 소개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지만 기쁨 시간에 쫓겨 제대로 소개도 못하고 그냥 등록실을 빠져나가 안타까울 때도 있다. 또 인도자들에 교회와 등록 절차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정착 새가족에게 쏟아야 될 정성을 다른 곳에 쏟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로 마음이 안타깝다.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이 충현의 성도들 가운데 있어 1인 1명 전도에 힘을 모아 주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새가족을 교회에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과 기도가 있었는지는 전도를 해 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충현의 이데 목회 초 첫 번째가 신령한 예배인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다. 모든 공 예배 시 기도자가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하고 15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은 충현교회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새가족에게 보여주는 것은 귀한 일이다. 먼저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

양으로 새가족의 마음의 문을 연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등록을 권유해야 할 것이다. 혹시 새가족이 예배를 몇 번 더 들은 후 결정할지 원하거나 머뭇거릴 경우 다시 한 번 편편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새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금 1인 1명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새가족을 우리 교회의 귀한 손으로 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등록시키려는 목적인데 눈이 보여 안타까울 때가 있다. 또 인도자는 교회의 어떤 봉사보다 새가족을 인도하고 교회에 적응시키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새가족은 갖 심은 씨앗과 같은 분량이를 했다고 다 지리지 않는다. 거기에는 땅과 수고와 정성이 있어야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릴 것이다. 언제 사단의 회임에 빠지지 못하며 넘어지지 못한다. 또 우리의 초신자 사역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낯선 교회 생활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신사들은 새가족을 인도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도 매주 토요일 새가족을 진화 심방하고 주일예배를 같이 드리며 새가족 양육부 집회와 교회 모임에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새가족을 교회에 인도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적어도 1달 동안은 함께 예배 드리며 기도해 주고 길잡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록에 관해 충현의 성도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등록실에서의 등록은 새가족의 입적 사항을 기재하고 회화를 소개하며 충현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약속을 절차이다. 그리고 해당 교구 구역제외의 만남을 통해 교적변호가 부여되는 입적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충현교회의 교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일확천금도 새가족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새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새가족 등록실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망 글 파 지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

10교구 6지역

◇ 완강히 복음을 거부하는 현지인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전의 나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하며 참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자들도 나와 같이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쳤습니다. (민병욱 집사)

◇ 신앙 앞에서는 생명의 강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를 반갑게 맞는 사람들도 있었고, 위험하니 빨리 떠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위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 담대한 마음보다 두려움이 앞섰고 경찰서에 갔을 때는 더욱 열려버렸습니다. 결국 복음의 능력은 현지에서 나타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신궁순 권사)

◇ 구원의 은총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신앙 생활하며 금전에도 선교지를 놓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다가 날씨가 다가오니 마음을 갈갈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며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성령님께서서는 나의 연약함이 아닌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은필재 권사)

◇ 한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7, 8명 모여 있어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었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그 전도지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 다른 아이들을 만났는데 우리와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자 너무 좋아하며 따라했습니다. 두 부류의 아이들을 보며 매우 감사했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신남 집사)

◇ 손가락을 다친 한 어머니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쳤음에도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전한 복음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 뒤에 마침 준비해 간 밴드를 손가락에 붙여 주자 그들은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 성경책을 선물하며 매일 매일 온 가족이 모여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였을 때 그 가정의 어머니는 반드시 성경을 읽겠다고 기쁨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했습니다. (조애란 집사)

◇ 사역 중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더욱 예수님만을 의지하였고, 더욱 기도로 하나되어 자기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내어 놓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힘을 주셨고, 우리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뿌리진 복음의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박태선 집사)

◇ 6월에 되는 날 오전에는 잘 전도했는데 오후에 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선생님이나 와서 경찰에 우리를 신고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되어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눈을 부릅뜨며 조롱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 그 경찰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당신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으니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생수를 한 컵씩 주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였습니다. (조태만 권사)

◇ 첫 사역부터 준비된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슬림이었지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가족 모두 우리와 함께 찬양과 율동을 따라하며 "아멘"으로 화답했던 가정, 일하던 중에서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녀들까지도 귀 기울이게 했던 어머니,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들으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여학생들, 깨끗한 농장으로 주기도문까지 왔던 아이들, 405장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던 이주머니, 기꺼이 차를 세우고 끝까지 들던 사람들, 성경책을 받고 매일 읽겠다고 약속한 남학생 등...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정 집사)

◇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서툰 언어로 무엇인가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실로 믿고 당연히 전해야 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위함을 하거나 화를 내어도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데 전심하였습니다. 허황된 우상을 섬기며 다른 영혼들까지도 막고 있는 무슬림의 기세가 꺾이고 무너져 그 땅이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송동춘 집사, 총무)

◇ 사역을 하루 넘겨두고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 우리의 사역은 잠시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꾀박자들을 대적하였을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강만호 안수집사, 팀장)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9일(금) ~ 10월 6일(금)	12교구 5지역	예정호
9월 29일(금) ~ 10월 7일(토)	청년2부(2)	석영식
9월 30일(토) ~ 10월 7일(토)	청년1부(5)	김종선
9월 30일(토) ~ 10월 7일(토)	청년2부(4)	이정택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9일(화) ~ 9월 28일(목)	16교구 7지역	이상범
9월 20일(수) ~ 9월 27일(수)	6교구 5지역	이세영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4일(목) ~ 9월 22일(금)	4교구 3지역	채홍표

회개하며 전한

십자가의 복음

비행기에서 내려 약 이틀이 지난후 선교지에 도착했다. 출발하면서부터 마귀는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는 장시간의 이동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함으로써 순간 순간 이겨냈다. 지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서는 처소도 예비해 주셨고 많은 영혼들을 예비해 주셨다. 다음 날 사역을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우선 피곤했던 우리의 육신은 새 힘으로 활기가 넘쳤다. 낯선 환경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축복 정도를 중심으로 사역하며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찬양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순순한 미소가 담긴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었다. 어쨌든 전도인이었지만 함께 따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현지인들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리석음과 교만을 회개하며 더욱 간절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쳤다.

비가 많이 내려 불편하였지만 때마다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매 순간 우리는 무릎을 꿇고 더욱 십자가만을 바라보았기에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과 감사가 가득했다.

이송이(성도, 1교구)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 속에도, 그리고 엄마 마음 속에도 계시니까요. 나와 함께 계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주시고 좋은 선물도 많이 주셨어요. 고운 목소리로 찬송을 잘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유치원도, 충연교회도 잘 다니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쁜 꽃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애와 달과 별도 만들어 주셨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엄마와 아빠께 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엄마도 밤마다 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꽃 1만 송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에 주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눈물이 나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좋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게 해 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디 가지 마시고 저의 마음 속에 항상 있어 주세요.

김정연(유치부)

말씀과 기도는 나의 힘



저는 작업장에서 머리카락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매일 편을 만지고 조립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가끔은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부 선생님들께 제가 만든 편을 머리에 꽂아 드리려는 생각으로 다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부 선생님들이 일 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제 몸 또한 아프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 다시 힘이 납니다. 또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모두 건강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 전에 꼭 예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요즘 시련을 읽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맘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 또한 매우 좋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모두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은 힘이 되니까요.

임희선(사랑부)

은총으로 풍성한 예수님의 구역

우리 구역은 권사님 두 분, 젊은 엄마들 세 명, 어린 아기를 네 명과 구역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집마다 거리가 멀고, 아이들을 챙겨서 가야 함으로 구역 예배 드리기를 다소 번거롭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태워주러 가고, 예배가 끝나면 집까지 태워다 드린다.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길, 역시 어른들의 심령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즐겁게 예배를 드린다.

구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 정말 좋다. 그 은혜가 구역 식구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어 참 좋다. 또한 주일 예배의 말씀을 미리 배우고 묵상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된다. 구역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 서로 기도 요청을 한다. 또한 권사님들의 푸른함을 느끼고 신앙의 선배로서 또 그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나누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 애쓰는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게 된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 있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형숙(집사; 16교구)

“예수님 믿으라고 지겹게 말하는 애”

저는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다른 친구들과 달라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로 하여 학교에 다니지만 저는 친구들을 한 여리라고 더 전도하려고 다녀요. 친구들을 만나면 먼저, “종교가 뭐니?”라고 물어요. 그래서 물

교나 천주교를 믿는 친구들은 제 전도 대상이 되지요. 그 다음 “이번 주에 시간이 되니?”라고 묻은 후 된다면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하고 안 된다면 “그 다음 주는 어때?”라고 물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친구는 없겠지요? 그리고 “주일날 언제? 어디서 만날래?”라고 약속해요.

전 전도할 친구들을 위해 먼저 기도를 아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전 우리 반에 소문이 났답니다. 무슨 소문이란냐 “예수님 믿으라고 지겹게 말하는 애”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전 그 말이 좋아요. 제게는 친구들의 죽어 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명과 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세상의 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상을 받는 것을 생각하며 전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가 전도하여 흘린 눈물을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 감사해서라도 충분히 전도하고도 남아요.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해요. 그럼, 모두 모두 파이팅!!



임현지(소년부)

교회 탐방 청년 2부 가정용 조

복음의 기쁨으로 가득한
젊은 일꾼들

막 집회를 마치고 조별 모임을 갖고 있는 청년 2부의 가정용 조의 조원들을 만났다. 시급박적함 속에서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이미 복음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젊은 일꾼들의 면모를 들여다보았다.

가정용 조는?

저의 조는 8가족 15명의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25세부터 39세의 연령대로 주로 결혼하여 막 신앙 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부부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창용 집사, 조장)

조별 모임을 통한 은혜는?

남편의 직장 간계로 혼자 참석하고 있었던 성경 공부들 통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늘 은혜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슬아)

말씀의 교제를 통해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경우에 '나의 삶에서 주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에 대해 나의 때 제가 물질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때부터 부끄러워했던 성경 말씀인데 저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였고, 진심으로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은영)

심 속에서 갖고 있던 고민과 염려하던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준재)

가정을 갖고 아기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신 예수님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은옥)

신앙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공부하던 중 제 안에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욕심 부리며 제가 아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였고, 지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정희풍)

삶에서 누리는 십자가의 은총은?

결혼을 하고 아기를 키우다 보면 말씀의 중요성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아기를 키우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아직 청년 2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였다면 꼭 오셔서 십자가의 은총을 나누기 바랍니다. (이상근 집사)

결혼을 하고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같은 프래의 아기 엄마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어서 저에게 청년 2부는 정말 고맙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며, 매일 드리는 못지않은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회서 말씀을 나누지만 정작 실천하지는 못 하고 싶었던 삶을 회개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눔으로써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보련)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 온 때는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주일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리 좋지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임이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주셨어요. (임유리)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

부모님을 따라 어린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같이 청년 2부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행동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맞추게 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 기쁩니다. (이창호)

저는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말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고 있던 중 아침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께 '정말 살아 계신다면 제 기도를 들어달라'는 아주 단순한 기도였어요. 그렇게 두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저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아기가 생겼어요. 그 경험으로 살아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항상 함께 계신 그분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조은희)

말씀에 대한 기쁨이 없던 저는 청년 2부에서 말씀의 교제를 통해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지난 여름 휴가 때는 지방에 내려갔었는데 주일이 되어 서울로 올라와 주일 예배와 청년 2부 집회를 참석한 뒤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전에 상상조차 못했던 성경 읽기를 시작한 것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게 나타난 큰 변화입니다. (장기정)

영적인 시험이 왜 오는?

결혼을 하고 더 많은 사단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남편과 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는 날이면 어둡거나 부딪치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가정은 맡기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기를 남편과 같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첫째 아기가 이제 4살이 되어 가정예배 때 아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쉽게 본문을 이야기하니 아이도 이제는 가정예배를 좋아합니다. 저의 조는 아직 초신자 부부가 많아 가정예배 드리는 일을 어려워하는 데 저의 가정은 '출현의 만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적극 권하고 싶어요. (이자영 집사)

말씀을 통한 참 기쁨! 아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이들을 환하게 만들었다. 비록 '초신자'라는 타이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오히려 믿은 우리의 만만함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마 20:16).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한 모임이기에 회원들의 공동체는 은총으로도 풍성했다.

(편집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300장 예수께로 가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불러온 이 찬송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다 어렸을 때에는 그저 좋아서 불렀던 찬송이, 지금껏 내 영혼 깊숙한 곳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쁨요, 걱정 근심 없고 평안 즐거워" 저는 이제 너무도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걸 느끼면서도 당장 눈앞에 막힌 어려움을 대할 때 주님을 찾기에 앞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부터 지금 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점점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겠지만, 저는 먼 곳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쁨요,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시요" 설레고 축하밖에 모르는 칠살은 나에게, 주님은 군악대에 들어보내셔서 그 부대 교회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부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보다, 내가 천사 같은 아이들을 접하면서 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전역하면서 말씀이 바로 신 출현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포레스트라에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이년에 다니온 선교지에서 철저히 주님의 이교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러는 동안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사 같은 영혼들과 주 믿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쁨요, 나와 같은 아이 부셨어요" 선교를 하면서 원뮐들, 특히 집사님들과 권사님이 제가 제안한 "예수께로 가면"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에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물레 배꼽을 잡고 웃었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만 찾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앞으로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삶이 온전히 주님 뜻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참고 험한 길로 주님께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민선기(할렐루아 오케스트라)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308	강세화	19	청년1부	정희정(18)
2309	최이정	19	청년1부	배성준(18)
2310	김효경	4	청년1부	여국진(1)
2311	권 신	19	청년1부	박소영(6)
2312	박은경	19	청년1부	김근아(1)
2313	조순자	3	장년3부	김기원(3)
2314	신정자	12	장년3부	정일지(2)
2315	차정숙	6	청년2부	최종미(6)
2316	장정현	19	청년1부	박태원(6)
2317	권영진	15	소망부	윤정숙(15)
2318	한인섭	4	장년1부	서준성(1)
2319	김보미	19	대학부	
2320	채은혜	19	대학부	

※ 출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0호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알림

1. 주안출원 광고매감 안내
주식인용 관계로 10월 1일자,
10월 8일자 주안출원 광고를 9
월 26일(화)까지 마감합니다.

별세

1. 이정숙 타고 은희경사(박성자
집사의 모친, 이장우 집사의 장
모, 3교구 병용우정수학) / 15
일 별세, 18일 장례
2. 유희자 은희서리(이정현 성
모, 이영숙 집사의 모친, 조경
숙 집사의 사모, 11교구 안원구
영, 12교구) / 15일 별세, 18일
장례
3. 나금순 은희서리(송 순 집사)

인호정 집사의 모친, 김원환 성
모, 박성자 성모의 장모, 13교
구 신원1구역, 2교구, 16교구)
/ 20일 별세, 22일 장례

결혼

1. 김창환 군(김창식 성도, 장흥성
성도의 아들, 인천제일장로교
회)과 김미정 양(김병익 집사,
면석진 집사의 딸, 11교구) /
30일(토) 12:00 휘드림전례식
해당층 2층 다이나믹도움

주소변경

1. 김영일 장로
경기도 용인시 가곡구 상하로
290번 대우APT 104동 504호

◆새가족 초청 금요집회

· 일 시 : 9월 29일(금) · 주 관 : 교구위원회 · 대 상 : 2006년에 입력한 새가족

◆장년 1부 송년회 전도주일

· 일 시 : 9월 24일(토) 12:30 · 장 소 : 제2교육관 507호

◆장년 3부 초청 전도집회

· 일 시 : 9월 24일(토) 12:30~13:40 · 장 소 : 제2교육관 307호

◆10교구 영성문헌

· 일 시 : 9월 28일(토) 10:00~16:30 · 장 소 : 송헌7기도원

◆장년 1부 송년회 집회

· 일 시 : 9월 30일(토) 17:30~21:00 · 장 소 : 제2교육관 4층

◆외선부 주석 수련회

· 주 제 :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나아간다'(마 16:21-27)
· 일 시 : 10월 6, 7(토, 일) 오전 11시부터 · 장 소 : 외선부 예배실 및 기타 장소

◆2006년 하반기 교육훈련원 개강 *9월 24일(토)까지 신청 가능

· 수료 성급종류 : 교사 양성부, 장년대원 양성부 · 전도대원 훈련

교육에 관한 문의와 신청은 교육훈련원 473호로 하십시오. 교육훈련원 신청서가 비어져 있습니다.

10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담당

월	일	주일 예배 (장로)					찬양예배 (신앙집사)		수요일 예배	
		I	II	III	IV	V	I	II	I	II
10	1	김영수	박철구	김창환	안석현	이성호	지규성	이인숙	장철환	
	8	이태식	박상대	최연준	임무천	노영환	김대우	김병희	박현숙	
	15	배순식	강철형	김진우	유상태	고제술	홍성욱	박근식	김부영	
	22	김영은	장철환	김규식	이달욱	전홍용	신선길	이정화	정현민	
	29	함철구	신상수	신광철	최차용	전홍철	김동기	김진사	김옥자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9/25(월)	9/26(화)	9/27(수)	9/28(목)	9/29(금)	9/30(토)	10/1(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정정철	안치원/조영철	정충선/문표식	양재홍/정운환	이성진/박종태	나광영/강영미	고광환/옥미자

예배담당 안내 (9/27-10/1)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9/27	수요 I	주님의 백성을 위한 그의 기도 (요 17:9-26) 김성관 목사	김준희	지인숙	오 늘라온 구세주 (호산나 찬양대)
9/27	수요 II	죽어 버리고 살 수 없다 (마 8:18-25) 최성규 목사	전성원	손선애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실로암 찬양대)
9/29	금요집회	김성관 목사	김익환		전도위원회 찬양단 / 9교구
10/1	주일 I	제자의 태도 (눅 1:14-17) 김택식 목사	황진걸	김영수	(예배 전 찬양)
10/1	주일 II	제자의 태도 (눅 1:14-17) 윤수일 목사	고광환	박철구	예수 나를 위하여 / 의 / 소리로 다 감동하 (가브레일 합창대 찬양대)
10/1	주일 III	제자의 태도 (눅 1:14-17) 김성관 목사	전성원	김준성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의 / 사랑에 이끌림 (합창대 찬양대)
10/1	주일 IV	제자의 태도 (눅 1:14-17) 여극근 목사	김정선	안석현	구주여 광복이 임하여 / 의 / 사랑 오실때 (합창대 찬양대)
10/1	주일 V	제자의 태도 (눅 1:14-17) 이창수 목사	이광준	이성호	내가 참 의지는 예수 의 / 소리로 다 감동하 (합창대 찬양대)
10/1	주일양말	여인의 말씀에 대한 축복 받는 자의 태도 (레 11:3) 김성관 목사	이재영	지규성	별이 어성종장단 / 소망부 / 호산나 찬양대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1:00(외국인 특별예배)	본당
	V 오후 3:00 (젊은이들이 드리는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금요집회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새벽기도회	저녁 7:30	본당

기도원 집회 안내

집회	시간	차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예배	저녁 11:00	금요일회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권. 오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부 예배는 그로 말리아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통역 가능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at Larki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신교관 1층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지 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초 소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교육관 4층	
대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 부	오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 부	오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전 12:30 교육관 307호
	사 망 부	오전 12:15 간 릴 리 홀
예배다부	오전 9:00(무예)	제2교육관 1층
	오전 1:00(장제)	
	(주) 오전 8:30~8:40 (일) 저녁 7:00~7:3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전 12:15 배 다 나 홀
	충현이언이집	주안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안교육관	충현복지관
국내외한국인교부	오전 11:00	아 연 홀

심 · 기 · 논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이병학	이훈
가복환	고규현	양서기	유지환(2교)	이재원
남산우	김종구	최귀봉	이창호	차신숙
			오승환	사계정(주무부)
김광남	이종석	임무천	전홍용	전홍철
재정리(주무부)	김기현	김대우	홍성욱	신교현(주무부)
이정우	단기봉	한승균	김영수	김환기
전도부	이창수	전도부	홍성욱	제2교구(주무부)
원윤철	이현수	안도현	황의만	김규형
12교구	전도부	예배원	예배원	4교구
최은덕	이계인	박다원	이대식	전도부
신교현	신교현	신교현	신교현	신교현
박용규	권명호	조종환	배준식	김영남
김서현	박서현	박서현	박서현	신교현
이성호	최희준	노영환	박철구	정철길
김도원(주무부)	신성환(주무부)	신성환(주무부)	신성환(주무부)	신성환(주무부)
신상수	고제술	강철형	김영은	이달욱
14교구	14교구	14교구	14교구	14교구
장철환	김준성	함철구	유석민	정선현
15교구	15교구	15교구	15교구	15교구
안석현	지인숙	김창환	김준성	이정식
16교구	16교구	16교구	16교구	16교구
김은호	전하태	김신규	전계식	장승규
전하태	전하태	전하태	전하태	전하태
전하태	전하태	전하태	전하태	전하태
신선길	유상태	박상대	김규식	신광철
신선길	신선길	신선길	신선길	신선길

■ 부목사

이종태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여극근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2교구
안창환	나광영	정철호	고광환	위진량
12교구	12교구	12교구	12교구	12교구
김익환	장 준	이원철	이희식	최홍철
13교구	13교구	13교구	13교구	13교구
하종철	안지현	정충선	양재홍	이성진
14교구	14교구	14교구	14교구	14교구
최성규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15교구	15교구	15교구	15교구	15교구
윤수일	황진걸	이정훈	송용우	유재진
16교구	16교구	16교구	16교구	16교구
장광부	전성원	김철구	김철구	김철구
17교구	17교구	17교구	17교구	17교구
■ 이전도시				
윤인숙	한영준	김인식	홍순애	이우주
18교구	18교구	18교구	18교구	18교구
김광자	안태순	김정현	강덕철	최본성
19교구	19교구	19교구	19교구	19교구
전은희	김경자	김경희	이복순A	류진희
20교구	20교구	20교구	20교구	20교구
한성길	임태우	강영미	옥미자	이복순B
21교구	21교구	21교구	21교구	21교구
강호준	전영희	이혜숙	이혜숙	이혜숙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22교구
■ 찬양감독 강인규				
■ 찬양지휘자 서준식				
■ 찬양팀장자 김소연				
■ 찬양팀장자 장인희				
■ 신 교 사 송요한				

교회 소식은 길

